

문화특집



부안드림스타트 '미술놀이 통한 행복한 자아 찾기' 부모교육

부안드림스타트는 지난 23일 관내 30여 세대 부모를 대상으로 '미술놀이 통한 행복한 자아 찾기' 부모교육을 가졌다.

이날 부모교육은 '나는 꽃'을 주제로 열렸으며 성인기 삶의 스트레스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일환으로 미술놀이를 통한 체계적인 여가활동 제공 및 정서안정,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부모교육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신통합치유 조상 윤 교수의 진행으로 여가활동 부족 및 스트레스, 무기력 등으로 정서안정 및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는 성인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드림 스타트 관계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고 부모의 성숙함이 곧 자녀와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드른 활용 지적재조사사업

부안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주산면 소주지구 219필지(21만 4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했다.

지난 22일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뛰어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더 명확하게 분석 가능해 일필지조사 및 경계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또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효과가 예상되며 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도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소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일원 219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측량을 마무리하고 필지별 경계결정, 토지현황 조사, 지적공부 작성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부안군 김형원 민원소통과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소유자 간 경계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애)가 24일 김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격려방문은 강순애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하게 진행되었다.

이들 방문단은 김제시청 지하 충무시설에 마련된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서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 경찰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포도 등 제철 과일로 만든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훈련 참가자들은 지난 22일부터 가상의 각종 재난 사태발생에 따른 훈련 메시지 등을 신속히 처리하며 24시간 풀근무로 임하고 있다.

강순애 협의회장은 "이 같은 훈련을 통해 각종 테러와 재난사태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민관경 합동 공조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신속한 사태수습과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정읍개최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읍시문화공원 등 일원에서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이하 마을대회)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읍시문화공원을 비롯한 정읍시 일원에서 열린다.

1년에 한 번, 마을살이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평가받는 마을대회는 정읍시와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전국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이 준비하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와 정읍시의회가 후원한다. 마을대회 실무사무국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일 저녁 7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길놀이와 연극, 수제천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전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마을대회는 대회의 원형에 충실하여, 지역의 매력을 진하게 풍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국 마을 활동가들의 교류와 대화의 장이 될 행사로 마을선언과 대토론회, 기획 및 자유주제 토크콘서트 등이 준비되고, 각 지역 방언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마을살이의



2016.9.1(목)-3(토) 정읍시문화공원 및 정읍시 일대 blog.naver.com/active-j

시에도 발표한다.

행사기간 참가자들은 '마을탐방'의 일환으로 각 마을 주민의 가정에서 숙박하며 마을을 체험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직접 소통하며 속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다. 또 정읍시 문화공원의 길을 따라 마을들의 자랑거리 (활동사례, 특산품 등)를 즐길 수 있는 '마을 전시 한마당'을 비롯 전통놀이와 각종 체험부스들도 즐길 수 있다.

이번 대회 기간에는 활동가를 넘어 전국 단위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2차 정기회의도 열린다.

또한, 지역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게 될 '청년광장'은 작년부터 활동해온 정읍시 청년문화공동체인 '청문화'가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있다. 청년광장에서는 포럼과 전시, 공연과 강연을 통해 다양한 청년세대 목소리를 다양한 형태로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읍지역 마을축제인 '달빛잔치'와 '원오봉 마을음악회', '공동마을축제', '샘고를 아한아시아' 등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전국대회의 각종 전시와 체험, 숙박, 발표대회, 청년광장 등의 프로그램과 대화행사는 사전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 (http://activejeongeup.co.kr)와 마을넷 홈페이지 (http://www.maeil.net)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063.531-1373~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정읍지역 30개 마을공동체 대표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읍시,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식

정읍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 간 마을 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3일 수료식을 가졌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사무국장 이미경)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정읍지역 30개 마을공동체 대표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이루어진 교육은 이론교육 10회와 현장실습 3회 등 총 100여 시간에 걸쳐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마을 소개서 작성하기 △마을해설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읍시 일원에서 제9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전국의 마을 만들기 활동가와 주민 공무원 등이 정읍시 곳곳의 마을과 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며 "이번 교육을 받은

마을 해설사들의 역량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수료식에서 "교육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읍시 마을공동체의 따뜻함을 우리 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달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5기 이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관련,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과 함께 지역 활동가 양성 그리고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체는 지역주민이며,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활동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읍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과 고창, 부안이 3시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시티 투어의 활성화와 함께 KTX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공동노력해 나가기에 된다.

서남권시티투어 활성화·수도권 관광객 유치위한 업무협약

정읍-고창-부안-코레일 정읍역-신동아고속관광 공동으로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 코레일 전북본부 (주)신동아고속관광은 지난 23일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6 서남권 시티투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개 기관은 지역 관광 문화 조성에 협력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 상품 개발과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문화관광과 철도여행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사

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정읍과 고창 부안 3시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시티 투어의 활성화와 함께 KTX 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동노력해 나가기에 된다.

정읍 등 3시군은 특히 코레일과 (주)신동아고속관광과 공동 마케팅을 통한 관광 상품을 개발 등을 통해 서남권 관광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5개 기관 간 협력력을 통해 서남권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개발로 관광객에게 보다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 즐

길거리, 체험거리 제공함으로써 3개 시·군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약이 서남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가속화함으로써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읍과 고창, 부안 3시군은 서남권시티투어와 관련, 지난 2013년 정읍에서 처음 주관한 이래 해마다 3개 시·군이 교대로 주관·시행해오고 있다. 3시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460회를 운영, 민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승복 김제부시장, 지평선축제장 현장점검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24일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 축제 도약을 위한 사전 준비태세 점검을 위해 주행사장인 벽골제 주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36일 앞으로 다가온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개막에 앞서 벽골제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날 현장에 도착한 4개 부서 7개 담당에 대한 노고 치하와 함께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공직생활 기간 중 "현장에 답이 있다"를 평소 지론으로 삼아 온 이승복 부시장은 올해 1월 김제시 부시장 부임 이래 연일 현장에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제시로 시민과 공무원으로부터 호평

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김제시 벽골제 및 시내권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세계 속의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을 슬로건으로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을 확정하였으며, '가장 한국적이며, 가장 세계적인 축제' 연출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로 5년 연속 대표축제로 도전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을지연습 기간중 실제훈련 실시

김제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건물에서 '2016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인 김제시청에서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실시됐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김제소방서 3대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 상황은 국가중요 시설인 시청 건물이 테러를 당했을 때 긴급대피, 인명구조, 테러범 진압, 화재진압을 각 기관별 일사불란하게 상황대처해 참관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훈련은 테러범 시청내입으로 폭발물 설치, 인질극으로 전개되어 3대대, 경찰기동대력대, 소방서등 긴급출동 대

피, 테러범과 협상 인질구조 테러범 제압, 화재진압 순으로 재난수습과 응급복구 순으로 리얼한 훈련이 되었다. 이번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통해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고, 대응 절차 숙달 및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다.

한편, 이관식 김제시장은 강령을 통해 "시민의 인보와식 고취시키는 실제훈련이었으며,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은 보장되어야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평상시 전시대비 훈련을 생활화해야 유사시 전시 임무와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김제시를 대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이웃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평상을 제작 지원하게 됐다.

도란도란 마을쉼터 평상만들기 봉사

김제자보종합센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원평집강소에서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는 지난 23일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상임이사 최고원)원평집강소에서 도란도란 마을쉼터 평상을 전달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란도란 마을쉼터 평상만들기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훈) 지원사업의 하나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김제시를 대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이웃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평상을 제작 지원하고 있다. 평상만들기 사업에는 SK건설 자원봉사단, 김제시소상공인협회와 지평

선두회, 그리고 나무공방 김용길 대표의 재능기부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상을 수혜받은 마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지원요청이 끊이지 않아 작년에도 올해도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15년에는 12개 마을에 24개 평상을 전달하였고, 올해는 28개 평상을 제작하기로 하여 금구면, 금산면, 황산면, 청하면, 요촌동, 광화동 등 각 마을에 현재까지 16개를 전달했으며, 일부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어서 봉사자들이 평상제작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